**< 고충처리인 활동 현황 (2019년) >**

헤럴드는 독자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언론보도에 대한 피해를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해 고충처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
고충처리인은 메일 및 전화, 팩스, 우편 등을 통해 내용을 접수하고 콘텐츠에 오류가 있거나 개인의 명예,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곧바로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조치하도록 하는 등 독자 의견 수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
다음은 고충처리인의 2019년 활동 내용입니다.

2019년 콘텐츠와 관련해 이메일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은 15건이었습니다.

대표적인 처리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.

-2014.9.30일자 본사 홈페이지(기타)에 게재된 「항균관련 국제협회 SIAA, 국내 설립 준비 시작」 제하의 기사 보도내용 중 민원 기관이 노출되어서는 안된다는 해당 기관 내규에 따라 기관명 삭제 요청이 들어와 해당부서에 전달 후 조치토록 함.

-2017.10.6일자 본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「기내난동 부린 한국 치과의사, 美 법원서 징역 18개월」제하의 기사 및 같은 날 「‘기내 난동’ 한국인 치과의사, 美서 징역 18개월형…치과는 폐업」과 2016.12.1일자 「[나라밖] 美법원, 대한항공 기내난동 40대에 징역3년」, 「美법원, 대한항공 기내난동 40대 한국 치과의사에 징역3년」 등 4개 기사에 대해 당사자가 사건에 대한 소명과 함께 기사 삭제를 요청해와 해당부서에 전달, 조치토록 함.

-2014.10.15일자 본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「김광진 “세월호 참사때 투입못한 ‘통영함’은 군납비리 백화점” 」제하의 기사와 관련, 기사에 언급된 ㈜오봉인터내셔널이 통영함 수사로 인한 기소, 조사 사실이 없다며 기사 삭제를 요청, 해당 부서에 전달하고 조치토록 함.